

386조원 '예산 전쟁' 시작됐다

국회 예결특위·9개 상임위 내년 예산 심의 착수 11월말 의결...여야, 국정화 예산 놓고 공방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38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 각각 3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했다.

여기에 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부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안전행정부위원회 등 9개 상임위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30일 시작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 활동에 앞서, 이날 오후 '한·중 FTA 보완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무역이득공유제를 비롯한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2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28~30일에는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다.

이어 경제부처(11월 2~3일)와 비경제부처(11월 4~5일)에 대한 부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간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이번 예산 심의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교과서 운영예산·국사편찬위원회 예산·교육부 지원예산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문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예결위 소속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새정치연합의 주승용, 김영록, 이개호, 박해자, 권은희 의원 등이며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까지 포함, 총 6명이다.

예결위의 꽃인 계수조정소위 참여 의원은 종합정책질의(28~30일) 직후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연합에서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각 1명씩 2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국회 예결위 계수

조정소위에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을 매년 번갈아가며 지역별로 1명씩 배정해왔다.

광주에서는 박해자 의원이, 전남에서는 김영록 의원이 계수조정소위 배정이 유력한 가운데 광주의 권은희 의원과 전남의 이개호 의원도 계수조정소위 참여 의사가 강해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여기에 새누리당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호남의 벽을 깨고 입성한 이정현 의원을 배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심사하고 본회의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 광주·전남지역에서 3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면 내년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폭탄원료 밀반출 시도 IS 동조자 5명 국내 있다" 이철우 새누리 의원 제기

국내에서 사제폭탄 원료를 밀반출하려던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관련자들이 우리 정보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레바논 IS 동조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폭탄 원료인) 질산암모늄을 자기 나라로 몰래 가져가려는 것을 우리 측이 차단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이 의원은 특히 "IS 동조자 5명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추방하기 직전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여수서 만난 여야대표 26일 여수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5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 각자 다른 시간대에 강연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잠시 만나려다 수행원의 실수로 잠시 오해가 발생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사진은 악수하며 오해를 푸는 두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이는 지난 20일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직후 여야 간사가 브리핑에서 "정보 당국이 사제폭탄 원료인 질산암모늄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외국인 IS 동조자 5명을 적발해 입국을 차단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북한이 국감 기간인 이날 초 국회에 대한 해킹을 시도해 일부 자료를 빼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회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국정원에서 북한에 넘어간 자료를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국회 컴퓨터를 사찰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절대 국회를 들여다본 건 아닌데 (사찰 의혹이) 걱정이 돼서 그 이후에 좀더 내용이 있었지만 국가기밀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보를 안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선출직 평가위' 인선 완료

조은 위원장 등 외부인사 11명...내일 첫 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의원 20% 물갈이의 칼자루를 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인선을 마쳤다.

평가위는 조은 위원장을 포함,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인사 등 총 11명의 외부인사로 이뤄졌으며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인숙 전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 교수(국민기초생활보장지킴이연석회의 정책위원장), 백미순 전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신선호 광주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안상운 민변 변호사 등이 평가위원에 포함됐다. 또 양현아 서울대 법과대학 부교수(전 국가인권

위원회 비상임위원),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세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안윤호 대구카톨릭대 교수도 평가위원으로 내정됐다.

당헌당규상 평가위원들은 평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되어 별도의 최고위 의결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명단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 보고됐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교과서 정국의 한 가운데서 내부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물갈이 작업이 시작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오늘 국정화 협조 요청

국회 시정연설...내달 1일 서울서 한·일·중 정상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한·중 FTA 보완대책 추진 및 각종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와 '5자 회동'에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노동개혁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 만큼 이날 연설은 '5자 회동' 당부 사형의 대국민 버전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포함해 각종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 정제된 논리로 설명하고 진솔한 자세로 정치권과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

화와 민생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세대'와 '청년일자리'를 시정연설의 키워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함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어 얼굴을 마주하게 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별도 개최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한일 양측간에 협의해왔다"며 "최근 우리 측은 개최일자를 11월2일로 일본 측에 제의했고, 일본 측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安 "경도복합리조트 선정 적극 지원"

여수 방문... "文 혁신안 답 없어 난감...29일부터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6일 "당의 혁신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는데도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난감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장인의 1주기를 맞아 여수를 방문한 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안에 대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못 받아들일지 등 역제안을 하면 논의를 해서 변화하고 진전되는 것"이라며 "문 대표 측의 답변이 없어 오는 29일부터 우리 당에 대한 애정과 문제의식을 느낀 분들을 모시고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부패 청산, 낮은 진보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5가지 제안을 했다"며 "무엇보다 밖에서 얘기하는 제3당의 흐름을 무시하고 당 내부에서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의 어떤 분이 새누리당이 이기는 이유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야당보다 익숙하게 실망감을 주는 새누리당을 찍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며 "서글픈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바로 혁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과문이 오래갈 것이다. 당을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교과서 문제도 훨씬 쉽게 해결되리라 본다"며 "그래서 싸울 것은 싸우고 당내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자 누차 강조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역을 방문해 당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실망감을 준 것으로 들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당을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앞서 주철현 여수시장과 면담을 하고 여수 경도복합리조트 선정과 관련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경도 복합리조트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엑스포를 통해 마련한 많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임대보증금 대출

감정가 대비 70% 가능

최대 2,000만원 가능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p>
--	---	---